

레이디가가·할시·비버 제치고 '베스트 팝'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이 8월31일(한국시간) 세계적 권위의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한국가수 최초로 '베스트 팝' 부문 수상 등 4관왕에 올랐다. 이날 영상을 통해 신곡 '다이너마이트' 첫 무대에 나선 모습.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베스트 팝, K팝, 그룹, 안무까지 베스트 팝 부문은 한국가수 최초 블랙핑크는 '최고의 서머송'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그룹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세계적 권위의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한국가수 최초로 본상인 '베스트 팝' 부문에 비롯해 4관왕을 차지했다. 블랙핑크도 '최고의 서머(여름) 송'으로 한국 걸그룹 최초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이 빌보드 싱글차트에서도 새 역사를 쓸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가수 첫 '베스트 팝'...4대 팝음악 시상식 섭렵

방탄소년단은 8월3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전 세계 생중계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2월 발표한 정

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의 타이틀곡 '온'(ON)으로 '베스트 팝' 부문에 수상했다. 한국가수로는 처음이다.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할시,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등 톱스타들을 제치고 영광을 안았다. 또 '베스트 그룹'과 '베스트 K(케이) 팝' 부문 2년 연속 수상과 함께 '베스트 안무' 등 모두 4개 부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명실상부한 케이팝 대표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날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대신 이들은 영상을 통해 "아미(방탄소년단 팬)와 우리의 음악에 공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첫 무대를 펼쳐 서울 한강과 미국 뉴욕 등을 배경으로 경쾌한 디스코 안무를 선보였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6월 발표한 '하루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이날 '최고의 서머 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케이팝은 물론 아시아권 걸그룹 첫 수상이다.

●'다이너마이트', 세계 팝음악사 새로 쓴다?

이로써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세계적 위상을 더욱 굳히게 됐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앞서 '그래미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무대에 이어 처음으로 세계적 음악 채널 MTV가 매년 주관하는 'VMAs'에 출연했다.

이날 무대로 미국의 4대 팝음악 시상식에 모두 나선 이들은 '다이너마이트'의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순위로도 관심을 모은다.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및 미국 라디오 방송 횟수, 유튜브 조회수 등 이미 '핫 100'의 순위 합산 수치로 1위 기대감을 키운다.

이들은 '다이너마이트'를 8월21일 내놓고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777만회로 1위에 오른 뒤 2·3위를 오가고 있다. 빌보드 '팝송' 라디오 최신 차트(8월29일자)에서 30위를 차지했다.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조회 2억건을 넘겼다. 미국 유티매치 포브스는 이런 수치에 기대 '다이너마이트'의 빌보드 1위를 예측했다.

방탄소년단이 이를 실현한다면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의 '핫 100' 7주 연속 2위 기록을 뛰어넘는다. 케이팝을 넘어 세계 팝음악의 새 역사를 쓰는 셈이다.

한편 이날 'VMAs'에서 레이디 가가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협업한 '레인 온 미'(Rain On Me)로 '올해의 노래', '베스트 콜라보레이션'과 함께 '올해의 아티스트'로 뽑혔다.

윤여구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박보검, 진해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입소



박보검

연기자 박보검(27)이 8월31일 조종히 입대했다. 이날 오후 2시 검은 모자에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경남 진해의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소했다. 6주간 기초훈련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는다. 해군교육사령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과 군부

대 유입을 우려해 훈련소 인군을 통제했다. 박보검도 소속사를 통해 사전 예고한 대로 팬들에게 눈인사나 경례 없이 조용히 입소했다. 이어 부대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PCR 검사 결과는 1일 나온다. 2022년 4월 제대하는 박보검은 해군본부에서 문화홍보병으로 복무한다.

아이유, 현장 간호사에 아이스조끼 4600벌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감염병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현장 간호사를 위해 아이스조끼 지원에 나섰다. 8월3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아이유는 본명 '이지은'의 이름으로 대한간호협회에 1억원 상당 아이스조끼 4600벌을 기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코로나19 현장에서 방호복을 입고 더위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을 위해 전국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평소 꾸준한 기부로 실천해온 아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송강호·이병헌 주연 '비상선언' 촬영 중단

배우 송강호와 이병헌, 전도연 주연 영화 '비상선언'(감독 한재림)이 촬영을 중단했다. 최근 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해당 관계자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투자배급사 쇼박스도 8월31일 "배우와 현장 스태프의 건강 및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을 유지하며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촬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상선언'은 항공 재난상황을 그리는 영화다.

가수 바다 태교중...9월에 곧 엄마 된다



바다

가수 바다(41·최성희)가 9월 임마가 된다. 2017년 3월 9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한 지 3년여 만이다. 바다는 8월31일 팬카페를 통해 자필편지를 공개하며 "2세가 곧 태어난다"면서 "함께 기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잇단 재해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웨이브나인도 "바다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서 "행복하게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안정을 취하고 있고 아이 또한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기하 9월 첫 산문집 내고 작가 데뷔

가수 장기하가 작가로 정식 데뷔한다. 장기하는 9월 첫 산문집 '상관없는 거 아닌가?'를 내놓는다. 장기하는 2021년 작가 김훈·은희경·백영옥, 시인 이병률 등과 함께 여행 이야기 '안녕 다정한 사람' 집필에 참여했지만 단독 저서는 처음이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는 그가 일상과 음악을 오가며 느낀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는 출판사 문학동네의 블로그를 통해 연재된 글을 묶는다.

이경규·박명수 '웹 예능' 영토 확장

'진정규' 카카옴서 다양한 도전 예고편 공개 5일간 조회수 10만 '할명수'도 난생처음 '1인 예능'

'베터링' 방송인들이 잇달아 디지털의 세계로 향한다. 방송인 이경규, 박명수, 김구라 등이 유튜브와 카카옴TV 등 각종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예능 콘텐츠로 팬들과 만난다. 저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친다. 디지털 콘텐츠의 주 소비층인 10·20세대와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경규는 1일 카카옴의 디지털 예능 콘텐츠 '진정규'를 내놓는다. '예능 대부'로 불리다 '디지털 예능 신생아'를 자처하며, 다양한 주제로 디지털 콘텐츠를 찍는 과정을 담는다. 데뷔 39년차인 그는 휴대전화로 일상을 찍는 등 15분 분량 안팎의 짧은 디지털 예능 콘텐츠 제작현장을 처음 겪는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라며 연신 당황해하는 모습이 웃음 포인트다.

연출자는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모르모트 PD'로 이름을 알린 후 올해 1월 카카옴으로 이적한 권해복 PD이다. 두 사람의 합작은 유튜브 예고편을 공개한 지 5일 만인 8월31일 10만 조회수를 거뜬히 넘기면서 힘을 입증했다.

박명수도 유튜브 예능 콘텐츠 '할명수'를 지난달 21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동명의 유튜브 계정으로도 공개되는 무대는 박명수가 최근 방송가에서 유행하는 '부개'(부



이경규

박명수

가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주로 동료 방송인들과 진행자 콤플렉스를 이뤘은 그는 오롯이 혼자 진행하는 '1인 예능'에 처음 도전하고 있다. 특히 절친한 가수 유재환이나 개그맨 이재을 등 후배들과 소통하며 20대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감을 못 잡겠다"며 아직은 어색함을 드러내지만, 디지털 예능 콘텐츠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박명수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김구라는 일찌감치 디지털 세계로 뛰어 들었다. 1월 유튜브 계정 '김구라의 빠꾸기 골프TV'와 3월 '구라철'을 연달아 열고 춘철살인의 입담을 뽐내고 있다. 방송 경력으로 쌓은 화려한 인맥도 제대로 활용한다. 방송인 김국진, 잭스키스 장수원 등 골프를 좋아하는 스타들을 출연시켜 많게는 200만 조회수까지 얻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용성우·로운·차은우 '로맨스의 주연'

(경우의 수) <선배 그립스틱...> <여신강림>

막강 팬덤 발판 드라마 주연으로 연기자들의 안방 활약 관심 집중

'막강' 팬덤의 연기자 겸 가수 용성우와 로운, 차은우가 로맨스 드라마로 여성 시청자의 심장을 공략한다. 아이돌 그룹의 일원으로 화려한 무대에 오르면서도 차근 차근 연기 경력까지 쌓아 나란히 로맨스 드라마 주연으로 안착해 눈길을 끈다.

용성우는 이달 방송을 시작하는 JTBC 드라마 '경우의 수'에서 10년에 걸친 짝사랑과 애뜻하고 풋풋한 청춘 로맨스를 완성한다. 지난해 하이틴 로맨스 '열여덟의 순간'을 통해 드라마 주연으로 도약한 그가 이번엔 좀 더 성장한 20대의 사랑을 그린다.

'경우의 수'에서 용성우는 자유로운 사진작가 역을 맡아 신예인과 호흡을 맞춘다. 평소 로맨스 드라마에 의욕을 보인 만큼 바람을 이뤘다. 용성우는 "멋있어 보이다가도 소심하고, 우애하면서도 다정한 캐릭터"라고 소개한 뒤 "감정에 확신이 생기면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이를 표현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룹 SF9 멤버 로운의 '상승세'와 아스트로 차은우의 '굳히기'도 주목할 만하다. 그룹 활동을 쌓은 팬덤을 연기활동으로 탄탄히 다진 이들은 마치 순정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수려한 외모까지 갖춰 누구보다 로맨스 드라마에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운은 2018년 SBS 드라마 '여유각시벌'을 통해 연기자로서 잠재력을 인정받았



차은우

다. 지난해 MBC 하이틴 로맨스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가능성을 증명해 연말 MBC 연기대상 신인상까지 차지했다.

여세를 몰아 동명 웹소설이 원작인 JTBC 드라마 '선배, 그립스틱 바르시 마요'의 주인공을 맡아 연상의 회사 선배 원진아와 짜릿한 '밀당' 로맨스를 완성한다. 사랑의 감정에 솔직한 인물이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로운의 매력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차은우는 웹툰으로 먼저 인정받아 tvN 드라마로 제작하는 '여신강림'의 주연이다. 웹툰 팬들이 최적의 캐스팅이라고 반길 만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외모 콤플렉스를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만회하는 여주인공과 비밀 연애를 시작한다. '자존감 회복' 로맨틱 코미디를 지향한다.

이들이 안방극장에서 형성할 로맨스 물결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 군 복무를 시작한 박보검과 우도환 등 20대 스타의 빈자리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받는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